

축산업계 소식

불황기 난가대책 및 난분수입 질의 -계우회연합회서 경제기획원에-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임용택)는 11월 15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에 「불황기의 난가대책 및 난분수입」에 대한 질의서한을 보냈다.

질의서를 보면 '지난 11월 5일 계우회 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근의 난가 하락과 김장철을 감안할 때 금후 난가가 심히 우려되며, 추석성수기시와 같은 난분수입결정시에는 충분한 난가대책이 앞서야 할것이 아닌가, 또한 현재도 난분수입방침이 철회되지 않고 있어 양계인의 서명을 받아 진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난 9월 경제기획원에서 수해가 극심하여 계란공급이 장기적으로 부족될 것을 우려, 난분수입의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으나, 그후 가격이 안정되어 난분수입검토를 중단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이 온바 있다.

제25회 전국 농업기술자대회 개최

-농업기술자 1천여명 참석,
농업기술자상, 흙의 문예상 등 시상-

전국 농민지도자들이 단결과 증산의욕을 증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국력배양을 위해 마련된 제25회 전국 농업 기술자대회가 11월28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총재 류달영)가 주최하

고, 농수산부, 농진청, 농협, 축협, 건국대에서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김식 국회농수산분과위원장과 각 단체장, 농민대표 등 1천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류달영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경과보고, 대회사, 선언문 및 건의문 채택이 있었으며, 농업기술자상, 흙의 문예상, 농촌지도공무원봉사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또한 박종문농수산부장관의 격려사, 김식 국회농수산분과위원장의 축사가 계속되었다.

오후에는 김한곤 농수산부농정국장, 이한빈 전부총리, 김정호원예시험장장의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KBS에서 마련한 연예공개방송과 특별초청으로 양주별산대놀이 가 공연되기도 했다.

한편 대회참가자에게는 선경그룹 최중현회장이 기증한 가방과 농업기술자협회 발행 영농일지를 나눠 주었다.

일본, 중공산 옥수수 25만톤 구매

-내년 2~4월 선적 예정-

일본 곡물수입업자들은 1985년 2~4월에 선적될 옥수수 25만톤을 중공으로부터 구매하였으며 가격은 톤당 FOB 125~126달러로 미국산 옥수수 가격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옥수수는 주로 동북부의 大連, 중부의 秦皇島, 天津 및 靑島港에서 선적될 예정인데 주

로 3,000톤 규모로 선적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5,000톤 적도 선적될 것으로 보인다.

배 1척 선적하는데 평균 2주일이 소요되는 점으로 보아 적기에 선적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물질함유량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공동으로 10만톤을 구매하여 내년에 선적될 예정이며 내년 1/4분기 중에 선적될 10만톤에 대한 구매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만 가성광견병 발생증가

대만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1970년 이래 가성광견병 발생건수는 총 4천건이었으나 80년에 406건, 81년에 521건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한다.

최근에는 발생이 점점 광역화하여 21군 중 16군에서 발생하였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台南으로 82년까지 총 1,092건이 발생했다.

충남 서천에서 양계장 전소

지난 11월 16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송내 박종옥씨 양계장에 불이나 계사 9동(전평 300여평) 전계사를 태우고 2시간만에 진화되었다.

이날 불은 옥추실바닥 깔짚에 연탄난로 과열로 인해 불이 붙어 삼시간에 불이 전 계사에 옮겨져 초생추, 중추, 내추 6천수가 모두 불에 타 죽어 재산피해가 2천여만원이 났다.

소뼈 수입에 제동

빛이 계속 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외국에 대해 진 빛은 80만원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소뼈 수입문제가 주요일간지, TV에 보도되고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골자를 보면 '외체가 세계 3위니 뭐니 하는 판에 소뼈 수입이 웬말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뼈수입이 지난 12월 8일로 중지부를

적었다. 관세청에서 오퍼협회의 수입추천이 없으면 수입통관을 승인해주지 않을 방침임을 밝히고 냉동소뼈를 수입감시품목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계류증이거나 이미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와 협의하여 통관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앞으로의 소뼈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소값이 폭락, 축산농가의 생산의욕이 크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유화 조치이후 소뼈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소뼈수입통관량은 1백67톤(29만달러)에 이르고 있고 현재 수입완료되어 부산세관에 통관계류증인 것만도 2백27톤(39만달러)이고, 또 최근 수입허가를 받아 곧 들어올 수입예정량은 무려 1천3백96톤에 이르고 있다. 이중 6백76톤은 이미 수입신용장(L/C)이 개설되었는데, 이것을 모두 들어올 경우 1천7백톤의 소뼈수입에 소요된 2백90만달러의 귀중한 외화가 곰탕 도가니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10톤트럭 1백70대분량이다.

실로 기하급수적인 수입증가 추세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불요불급품의 수입추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던 관세청이 손을 쓰기에 이르른 것이다.

펜실바니아 AI검역지역 전면해제

USDA와 펜실바니아주정부는 지난 10월 4일에 열렸던 미국 브로일러협회(NBC) 연례총회에서 지난해 10월이래 1년동안 계속되었던 펜실바니아의 AI(Avian Influenza) 검역지역을 전면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자로 한개의 가금농장이 폐기처분된 이래 새로운 감염가금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 동안은 AI항체유무를 가리기 위해 난검사를 위시해서 도계검사 및 폐사된 가금의 AI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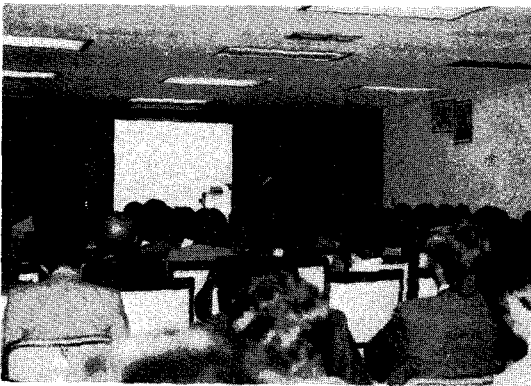
염여부검사를 계속하게 된다.

지난 일년간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펜실바니아지역은 랜카스터, 레바논, 더핀, 슈일킬, 버크스, 체스터카운티의 전지역 또는 일부를 포함한 4,000평방마일에 달했었다. 이중 일부지역(Susquehanna강 서부)은 지난 6월 6일에 해제되기도 했다.

농무성 AI대책반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펜실바니아주에서만 AI감염으로 가금 1,150만수가 도태되었다고 한다. 이를 종별로 보면 산란계 739만수, 육계 374만수, 종계 25만수, 칠면조 8만수, 지니아 fowl 및 기타가 4만수였다고 한다.

농 축산업 전산시스템 응용 세미나

-KAIST 부설 전산개발센터 주최로 -



「농축산업을 위한 전산시스템 응용세미나」가 사료회사 52개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KAIST 부설 전산개발센터 제 7그룹 주최로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원 서부지역행정동 제 4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전산개발센터에서 계속해왔던 국내 농축 산업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응용연구의 1차 결과로서 사료회사의 사료배합, 생산 및 재고관리, 판매관리, 재무회계관리 등을 위해 Sub System 들

을 종합화한 FEMIS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따른 발표회를 겸하여 열린 것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근 전산개발센터에서 개발해낸 FEMIS의 개요, 생산 및 재고관리, 판매관리, 재무회계, 사료배합 등인데, 강사로 정영근 실장, 김영인, 김종택, 김창현, 김영남씨가 맡았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료협회와 금성반도체(주)에서 후원하였다.

올림픽식품 33품목 선정

-농개공, 새로 17개 품목 추가 -

86·88 행사에 대비,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식품개발에 관련업체가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개발공사는 올림픽식품·개발품목을 종전 16개에서 새로 17개품목을 늘려 33개 품목으로 정했다.

이번 개발품목중에는 에그롤, 오리고기 닭고기 혼합패티, 즉석불고기 조리제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에그롤 등 10개 품목은 86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육가공기술 세미나 개최

제 5회 육가공기술 세미나가 한국식육연구회(회장 장관형) 주최로 11월 17 서울대 농대에서 개최되었다.

학계, 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Raw 소세지의 제조(신현길, 전국대가공학과 교수)

- Boneless Idam Processing 및 첨가물의 역할(서광덕, 미 Goehring Meat社 QC담당 매니저)

- 식육가공품의 무균화포장법(요꼬야마 미쯔오, 일본 KOREHA 화학공업식품연구소장)

- 식육포장가공의 현황과 전망(김정현, 한국냉장 생산부장)

자동화 계사에 대한 심포지움

- 제일양계기구제작소 주최, 본회 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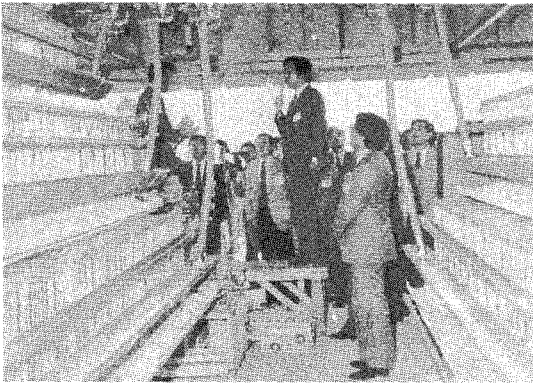
(박호일 사장)



(角谷榮一 사장)

양계업의 자동화를 위한 양계용 전자동계사 시스템 심포지움이 지난 11월13일(화) 안양 뉴코리아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일양계기구제작소(대표 박호일)와 일본(주)晃伸製機가 주최하고 본회에서 후원한 이번 심포지움은 자동급이시스템, 자동급란시설, 계분처리시설 등 완전자동화된 계사시설에 대하여 현장견학과 비디오상영, 상호의견교환을 통하



여 참석자의 진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심포지움은 제일양계기구제작소 하재기부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角谷榮一사장 및 박

호일사장의 인사말과 본회 노영한 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현장견학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IC회로 및 타이머가 내장되어 필요한 시간에 자동조절된 필요한 량의 모이가 급여되고, 모이통에 연결된 감지기로 모이의 허실을 방지하여 낭비를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되어 있는 전자동계사와 양계장에서 바로 GP센타로 연결되는 자동집란시설이 소개되었다.

또 비디오를 통해 자동화처리되는 계분 건조시설이 소개되어 계분의 상품화의 필요성이 발표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대군사육농가와 관련업계의 많은 인사가 참석해 현대화 되고 있는 양계산업의 발전과정중 기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매우 뜻있는 행사였었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계사자동화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료를 원하는 분은 제일양계기구제작소 (전화 : 안양 52-0247, 1316)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 곡물생산 8.5% 증가

- 금년 17억 8천만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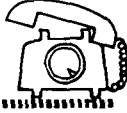
금년의 전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8.5% 늘어난 17억 8천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12월 10일 밝혔다.

FAO는 이날 발표한 월례 보고서를 통해 금년의 세계 곡물생산량은 중공과 인도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풍작에 힘입어 17억 8천만톤이라는 기록적인 풍작이 예상되나 만성적 식량부족사태에 시달리는 일부 개도국의 곡물 총생산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오골계 분양

712-0040

업계단신



○ **한일농원 (대표 차두홍)** : 홍콩에 육용계를 수차례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진력하고 있는 동사는 지난 11월 19일 태국에 아바에이커 종계 8천여수(암 6,900수, 수 1,035수)를 수출했으며, 이어 11월 26일에는 김포공항을 통해 같은 숫자의 종계를 태국 아바에이커 농장에 수출하였다.

○ **(주)대호무역 (대표 정택윤)** :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농축사업부를 신설하고 동물약품 완제품 및 동물약품 수출입대행, 축산기구 수입판매, 일반축산관계 상품 수출입대행 업무를 개시하였다.

또한 동사는 다년간 축산업계에 종사해온 문영찬(건국대 축대졸)씨와 정택용(건국대 축대졸)씨를 채용하여 우수한 제품을 수입 국내 양축가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가 주목되고 있다.



(정택윤 사장)



(문영찬 씨)



(정택용 씨)

○ **보거사료 (대표 마영호)** : 동사는 전 남부농산에서 평택농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이성균씨(서울대 수의학과졸)를 기술부장으로 특채하였다.

이성균씨는 동사에서 양축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질병예방, 경영지도 등 전반적인 아프터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 제일제당 (대표 손영희) 인사이동 :

〈전 보〉

문성기 곡물기획팀장

〈승 진〉

염홍섭 곡물2과장

김병룡 대두박 서울판매과장

정충성 사료판매업무과장

유태석 육가공 인천출장소장

김진석 육가공 대전출장소장

○ **해표사료 양주영업소 개설** : 지난 11월 수원공장과 거리가 먼 한수이북 및 강원도 지역 고객에 대해 사료운반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에 「해표사료 양주영업소」를 개설하여 판매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사는 이미 관할지역내 단위조합에 약도와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담당자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전 화 : (DDD : 0346) 7-9193

양주영업소장 : 김창구과장

한편 부서간의 친목도모와 체력향상을 위해 지난 11월 3일(토) 개최된 추계 동방유량 테니스대회에서 사료 사업부팀(육순교상무, 지역판매과 김대연)이 춘계대회에 이어 우승을 차지해 2연패의 성과를 거두었다.

○ **삼양약화학 (대표 민경우)** :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부산, 경북, 전북지역에 원활한 약품 공급을 위하여 양축가들의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

부산지역 : 최석채 (전 신기농장 근무)

경북지역 : 우재동 (전 경수약품 근무)

전북지역 : 이명호 (신구전문대 축산과졸)

한편 11월 3일 제 2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체력증진과 삼양인의 단합을 과시했다.

종합우승 : 은평팀 (주장 : 영업부 송문환)

준우승 : 서울팀

3위 : 설운팀

응원상 : 포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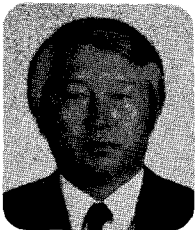
○대한 특수기계 (대표 고중현) : 20여간 축산업계와 양축농가와 같이 호흡해온 동사는 제품의 생명은 품질이며 기업의 생명은 신용으로서 축산경영기제화를 추구하는 한편 아프터 서비스기간을 설정하여 축산기계 전품목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대 상 : 대한특수기계 전품목
 신청기간 : 1984. 12. 5~1985. 1. 15.
 신청방법 : 양식(동사)의거 우편접수함.
 일 시 : 우편접수후 개별 통보 (84. 12. 15
 85. 2. 28)

※ 월간양계 12월호 광고참고.

○사민남(과학사료)전무 유럽시찰 : 지난 10월 23일 유럽지역의 축산업계 현황파악차 출국하여 20여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17일 귀국하였다.

사민남전무는 이번 시찰기간중 스위스, 독일 등 유럽 축산 선진국의 동물약품업계 및 질병관계 연구기관을 둘러보았는데, 앞으로 질병연구는 물론 동사의 제품개발에도 많은 정보자료를 얻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민남 전무)



(여갑환 씨)

○선진사료(주) (대표 이원복) : 동사 및 동사 계열농장에서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축사료에 근무하던 여갑환씨를 채용하는 외에 신규사원 16명을 채용하였다.

이제원 (영남대졸) 연민호 (건국대졸)
 홍태규 (영남대졸) 김영현 (건국대졸)
 김주영 (서울대졸) 권영구 (연암축산졸)
 한경수 (서울대졸) 허만택 (진주농림졸)
 민동기 (서울대졸) 유준보 (제명실업졸)

육화균 (고려대졸) 유희중 (순천농업졸)
 최종영 (강릉농고졸) 이관희 (고령농고졸)
 이현식 (창녕농고졸) 오태석 (청주농고졸)

○부국사료(주) (대표 한호섭) :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영업의 쇄신을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로 김영수 영업과장(전 두산곡산)을 특채하였다.

○광주지역 양계인연합회 (대표 전광석) : 사무실 및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 소 :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역 2리 27-63
 (거북빌딩 3층)

전 화 : 2-3926

○삼화가축약품 (대표 이병호) 사무실 이전 : 동사는 11월 26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장소 : 서울 동대문구 망우 2동 564-6

전화번호 : 사무실 493-9500

자 택 245-4374

○해표사료(대표 신명수) 직원보강 : 동사는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공장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11월 1일부로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을 보강했다.

사료사업부 판매관리과 이재호(전 쌍용그룹)
 사료사업부 기술과 이용암(고대축산과졸)
 사료사업부 기술과 권호섭(경상대 낙농과졸)

사료사업부 기술과 김재옥(전대축산과 졸업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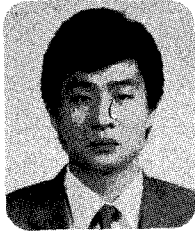
동방사료 기획담당 이주암(전 유한양행 판촉부)

” 총무담당 서가성(부산산업대 경영학과 졸업예정)

” 공무담당 심재도(전 포항제철)

한편 사료사업부 기술과에 근무하던 김대연씨를 11월 1일부로 지역 판매과(수원지구 제 10지역담당)로 발령, 수원지구 판촉을 강화했다.

○대성미생물연구소 : 11월 3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곡공장에서 신임 이동규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동규 사장)

이날 이동규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인력과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직원이 합심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제시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동사의 공장증축이 완료되어 그 기념식도 함께 가졌는데, 이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날짜로 간부진의 승진발령에 있었다.

장세창 전무이사(전 생산부 상무)

허 원 생산부이사(전 생산부장)

이완식 경리부이사(전 경리부장)

○제일제당〈주〉손영희씨 대표 취임 : 지난 11월 1일부로 손영희씨가 동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월산공업사(대표 정준모) 사료자동

급이기 개발 : 발전하는 양축농가의 시대적부응에 발맞추어 보다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작업으로 인해 양축농가의 발전은 물론 부농을 약속하는 사료자동급이기(실용신안 특허원 10433호)를 다년간 연구끝에 개발하여 판매중이다.

연락처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리 286

전 화(마석) 247 (서울) 435-5412

○유니화학(대표 조성용) : 사세확장과 우수한 약품을 양축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일부로 강병곤 생산과장(전 제일제당 유전공학 사업부)을 특채하였다.

한편 12월 13일자로 전화번호가 553-1811~3으로 변경됐다.

○양충훈전무(이글케미칼) : 11월 14일 일본에서 열린 세계기독교지도자대회 세미나 참석차 출국했다가 24일 귀국

○박동영전무(중앙케미칼) : 대만에서 개최된 제 4회 아시아수의사회 총회참석차 11월 25일 출국했다가 일본 등지를 둘러 12월 6일 귀국

● 신 제 품 ●

항콕시뎀제-25시판(녹십자수의약품)

콕시덴-25(COCCIDEN-25)는 미국의 다우케미칼(DOW CHEMICAL)사에서 개발한 피리디놀계 항콕시뎀제로서 콕시덴-25중에는 클로피돌(Clopidol)이 25% 함유되어 있으며, 사료 1톤당 동제 500g(Clopidol로서 125ppm) 첨가로 콕시뎀증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콕시덴25는 콕시뎀 원충의 생활사중 초기 단계인 「성숙 오-시스트」 및 「스포로조이트」에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원충이 닭의 장점막에 손상을 주지않는 단계에서 원충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료첨가용 항콕시뎀제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항콕시뎀제의 내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항콕시뎀제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언젠가 반드시 내성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성주 발생억제 및 완벽한 예방을 위하여 로테이션 프로그램(교차내성이 없는 항콕시뎀제를 수개월마다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셔플프로그램(닭의 사육기간을 구분하여 교차내성이 없는 약제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 포장단위 20kg 지대